

The 논술	2015 연세대 인문
---------------	--------------------

<문제 1>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가)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거둬 나무라서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이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害鳥)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용모는 아무것도 풀릴 게 없다는 투로 원기 있게 말했다. 그것은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았다. 지은 죄 없이 고개 조이고 살아온 사람이 오랜만에 쳐 보는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었다. 판사가 고개를 갸웃하고 나서 용모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꿩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이겁니까?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에 야생 동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디유,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物格)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동물-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하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옳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시문 (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이론을 통해 해부학적, 행동적, 그리고 사고와 의식, 감정을 포함하는 정신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물들 사이에 진화적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어렵듯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자신과 현격하게 달라 보이는 종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급진적 의견이 아니다. 만일 인간이 특정한 기술 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다른 동물들 역시 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지성과 지각 능력, 감정, 그리고 윤리의식이 어디에서 기원하겠는가? 종들의 서열관계에 관한 개념은 다른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그것은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의미

하다. 예를 들어, 칩팬지가 조이스틱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미로찾기를 하는 것을 본 사람은 “그것 봐, 칩팬지가 새보다 영리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새가 칩팬지보다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 봐, 새가 칩팬지보다 영리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더 영리하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제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특정 종의 개체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종 특유의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실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연속값으로서의 지능을 언급하는 대신, 우리는 광범위한 친족 관계상에서 우리와 가깝거나 비슷하게 생긴 종들이 우리와 관계가 멀거나 덜 비슷하게 생긴 종들보다 더 영리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종(種) 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로,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실제로는 인간의 이름으로)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하며 가치 있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들의 고통에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닫아 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편협한 인류애적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존중해달라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그들의 간청에 귀를 닫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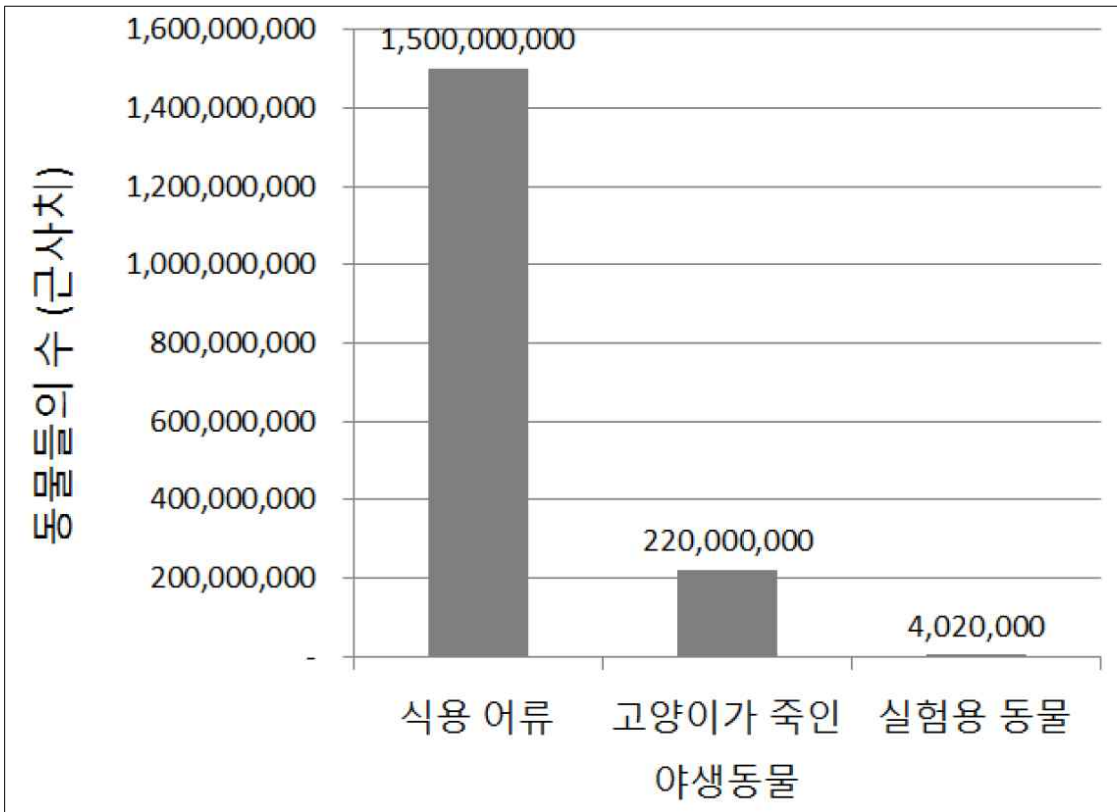
제시문 (다)

동물들은 자의식적이지 않으며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그 목적은 인간이다. 우리는 “왜 동물들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류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다. 동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만일 개가 그의 주인에게 오랫동안 충실하게 봉사한다면, 그의 봉사는 인간의 봉사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개가 더 이상 봉사가 어려울 정도로 늙어버리더라도, 그 주인은 개가 죽을 때까지 개와 함께 해야만 한다. 그러한 행동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들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물의 어떤 행동이든 인간 행동과 유사하고 동일한 원리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간에 대한 상응하는 의무를 함양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가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쏘 죽인다면, 그의 행동은 비인간적인 것이며 그가 인류에 대해 보여주어야 하는 자신의 인간성에 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구태여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해야만 한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도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평가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관찰 목적으로 아주 작은 곤충을 이용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나뭇잎 위에 다시 되돌려놓았다.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인한 어떠한 해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한 생명체를 파괴한다면 미안한 일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말없는 동물들에 대한 자애로운 감정은 인류에 대한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킨다.

제시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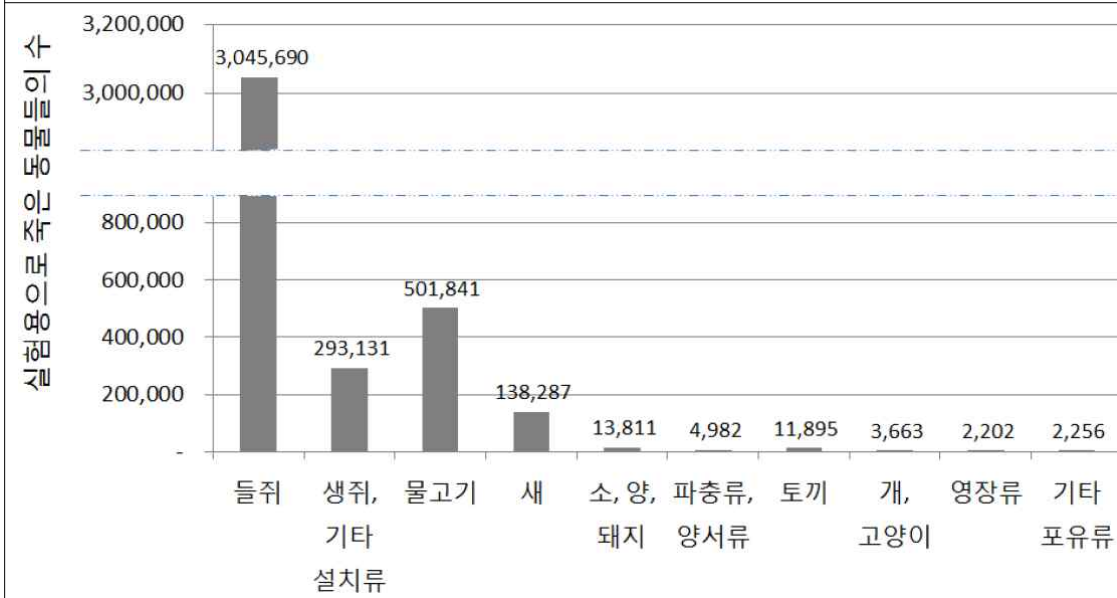
<도표 1>

동물들의 사인(死因) 비교



<도표 2>

실험용으로 죽은 동물들의 종류



<도표 3>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치료법의 활용 정도 (근사치)

인공심장 판막 이식 횟수	4,000건
유방암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수	35,000명
인슐린을 투여받는 새로운 당뇨병 환자의 수	100,000명
전신 혹은 부분 마취 수술 횟수	3,000,000건
천식 치료제 처방 횟수	30,000,000건
항생제 처방 횟수	50,000,000건

※ 2013년 영국의 연간 통계

1. 1번 문제 풀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논제이해 및 전략 구상	
2015 인문 논술은 전형적인 연세대 1번 문제인 ‘삼자비교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삼자비교형의 개요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되 ‘비교’부분에서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 외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특별한 기준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2) 개요작성	
[삼자비교형 - 3문단, 16문장의 구조]	
1문단 - 2문장 (2문장 이내의 서론)	
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② 세 제시문(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	
2문단 - 7문장	
③ 제시문(A)를 두 제시문(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 (두괄식 구성 1문장) ④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 (4문장) 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 (각 1문장, 총 2문장)	
3문단 - 7문장	
⑥ 두 제시문(B, C)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소주제 설정 (두괄식 구성 1문장) ⑦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3문장) ⑧ 제시문(C)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3문장)	
3) 요약 및 비교 (다면적 기준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	
3)-1 일반적 기준 상기하기	
주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대상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가.
의도	행위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도를 실현하려하는가.
결과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범위	그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3)-2 특별한 기준 세우기	
관계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무엇인가.

3) -3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요약의 선택과 삭제원리와 결합하여)	
(가)	<p>제시문 내용</p> <p>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을 했어요?”</p> <p>용모가 대답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害鳥)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p> <p>판사가 고개를 갸웃하고 나서 용모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꿩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이겁니까?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에 야생 동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오”</p> <p>“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유,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物格)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동물-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하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가)의 판사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자연까지 보호해야함을 역설하며 꿩을 해친 용모의 행위를 꾸짖는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한다. 이는 인간은 동물보다 우수하며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은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p>
	<p>제시문 내용</p> <p>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이론을 통해 해부학적, 행동적, 그리고 사고와 의식, 감정을 포함하는 정신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물들 사이에 진화적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어렵듯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자신과 현격하게 달라 보이는 종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들의 서열관계에 관한 개념은 다른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그것은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특정 종의 개체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종 특유의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실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연속값으로서의 지능을 언급하는 대신, 우리는 광범위한 친족 관계상에서 우리와 가깝거나 비슷하게 생긴 종들이 우리와 관계가 멀거나 덜 비슷하게 생긴 종들보다 더 영리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종</p>
(나)	

	<p>(種)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로,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실제로는 인간의 이름으로)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하며 가치 있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들의 고통에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담아 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편협한 인류애적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존중해달라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그들의 간청에 귀를 닫는 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나)는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들의 가치를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상대적 입장에서 주관적, 해석적으로 파악해야함을 역설한다. 종들의 서열관계를 나열하는 것은 일견 과학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한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p>
(다)	<p>제시문 내용</p> <p>동물들은 자의식적이지 않으며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그 목적은 인간이다. 우리는 “왜 동물들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류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다. 동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말없는 동물들에 대한 자애로운 감정은 인류에 대한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킨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다)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성이 없는 동물은 인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하며 인간이 인류애적 감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물을 이용해서 인류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수행해야함을 주장한다. 이는 동물을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상대라고 파악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p>

3) -4 표로 정리하기

	(가)		(나)	(다)
주체	판사	용모	화자	화자
대상	용모	동물 (꿩)	동물	동물
의도	자연생태계 보호 및 법 수호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물 나름의 특수성 인정	인간적 감정발전
방법	훈계	꿩 살해	종 우월주의 탈피	동물을 인간적 감정 연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

결과	용모와 대립	피소	편협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 탈피	표면적 동물존중
범위	재판		광범위	광범위
관계	공생적	인간중심적	공생적	인간중심적

4) 일반적 원칙으로 구체적 사례 평가하기

※ 왜 일반적 원칙으로 구체적 사례를 평가해야하는가?

연세대 논술 발표자료 中

아쉬운 점은 제시문들 간의 비교 분석이 없다는 점이다.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 기존 사회제도에 순응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세와 주어진 제도를 거부하면서 까지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자세를 대비시킨다든지, **제시문 (나)의 주인공 여성이 겪는 고통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제시문 (다)의 공리의 원리에 따라 합리화 될 수 있음을 답안에서 더 논의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4-1) 일반적 원칙과 구체적 사례의 구별

(가)	재판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다루고 있음.
(나)	생명중심주의라는 일반적 원칙을 다루고 있음.
(다)	인간중심주의라는 일반적 원칙을 다루고 있음.

-> (나), (다)로써 (가)를 평가해야함을 알 수 있다.

4-2) 평가의 기준과 대상 설정

평가의 기준	평가의 대상
(나)	(가)의 판사
(다)	(가)의 용모

4-3) 평가하기

①	(나)로써 (가)의 판사를 평가
	(나)의 입장에서는 (가)의 판사의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판사는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보호해야한다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용모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나)로써 (가)의 용모를 평가
	(나)의 입장에서는 (가)의 용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의 용모는 종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편익을 위해 썩의 목숨을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p>③</p>	<p>(다)로써 (가)의 판사를 평가</p> <p>(다)의 입장에서 (가)의 판사의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판사가 용모를 꾸짖은 이유가 인류애적 발현을 위한 연습 도구로써 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인간과 유사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p>
<p>④</p>	<p>(다)로써 (가)의 용모를 평가</p> <p>(다)의 입장에서는 (가)의 용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용모의 행위는 인류애적 감정의 발현을 위한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쾩을 농사라는 목적에 방해가 되는 수단으로 파악하여 쾩의 생명을 해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p>
<p>5)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p>	
<p>[삼자비교형 - 3문단, 16문장의 구조]</p>	
<p>1문단 - 2문장 (2문장 이내의 서론)</p>	
<p>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동물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희생 또는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개체인가.</p> </div> <p>② 세 제시문(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가), (나), (다)는 모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p> </div>	
<p>2문단 - 7문장</p>	
<p>③ 제시문(A)를 두 제시문(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그러나 (가)의 용모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나), (다)는 동물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는 차이점이 있다.</p> </div> <p>④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가)의 판사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자연까지 보호해야함을 역설하며 쾩을 해친 용모의 행위를 꾸짖는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한다. 이는 인간은 동물보다 우수하며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은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p> </div> <p>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나)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다) 또한 인간은 동물에게 간접적 의무를 지니기에 존중해야한다고 한다.</p> </div>	
<p>3문단 - 7문장</p>	
<p>⑥ 두 제시문(B, C)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소주제 설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그러나 (나)는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물을 인간과</p> </div>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된다고 보는 반면에 (다)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을 인류애적 감정의 발현을 위한 도구로써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㉗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나)는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들의 가치를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상대적 입장에서 주관적, 해석적으로 파악해야함을 역설한다. 종들의 서열관계를 나열하는 것은 일견 과학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한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의 입장에서는 (가)의 판사의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판사는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보호해야한다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용모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의 용모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편익을 위해 쾩의 목숨을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㉘ 제시문(C)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다)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성이 없는 동물은 인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하며 인간이 인류애적 감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물을 이용해서 인류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수행해야함을 주장한다. 이는 동물을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상대라고 파악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의 입장에서 (가)의 판사의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판사가 용모를 꾸짖은 이유가 인류애적 발현을 위한 연습 도구로써 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인간과 유사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용모의 행위는 인류애적 감정의 발현을 위한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쾩을 농사라는 목적에 방해가 되는 수단으로 파악하여 쾩의 생명을 해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 완성된 예시답안

1문단	동물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희생 또는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개체인가. (가), (나), (다)는 모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문단	그러나 (가)의 용모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나), (다)는 동물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의 판사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자연까지 보호해야함을 역설하며 쾩을 해친 용모의 행위를 꾸짖는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한다. 이는 인간은 동물보다 우수하며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은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다) 또한 인간은 동물에게 간접적 의무를 지니기에 존중해야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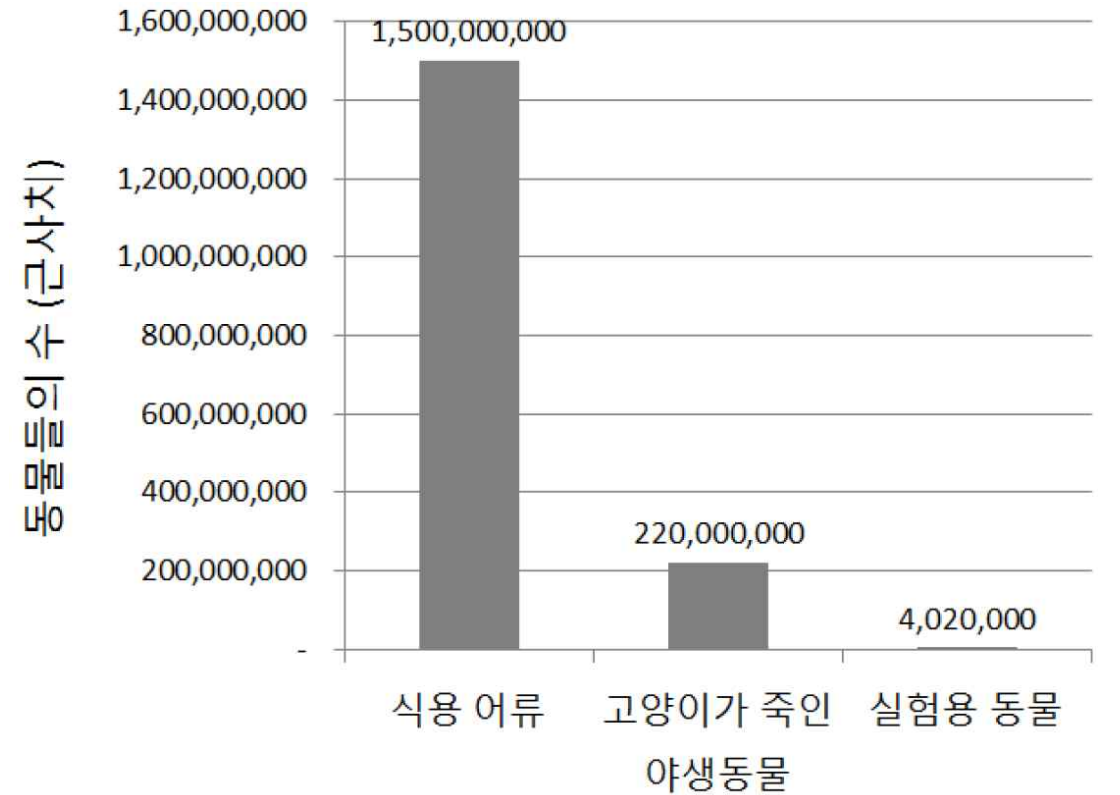
3문단	<p>그러나 (나)는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된다고 보는 반면에 (다)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을 인류애적 감정의 발현을 위한 도구로써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나)는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들의 가치를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상대적 입장에서 주관적, 해석적으로 파악해야함을 역설한다. 종들의 서열관계를 나열하는 것은 일견 과학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한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의 입장에서는 (가)의 판사의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판사는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보호해야한다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용모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의 용모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편익을 위해 꿩의 목숨을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성이 없는 동물은 인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하며 인간이 인류애적 감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물을 이용해서 인류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수행해야함을 주장한다. 이는 동물을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상대라고 파악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의 입장에서 (가)의 판사의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판사가 용모를 꾸짖은 이유가 인류애적 발현을 위한 연습 도구로써 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인간과 유사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용모의 행위는 인류애적 감정의 발현을 위한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꿩을 농사라는 목적에 방해가 되는 수단으로 파악하여 꿩의 생명을 해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p>
-----	------------------------------------------------------------------------------------------------------------------------------------------------------------------------------------------------------------------------------------------------------------------------------------------------------------------------------------------------------------------------------------------------------------------------------------------------------------------------------------------------------------------------------------------------------------------------------------------------------------------------------------------------------------------------------------------------------------------------------------------------------------------------------------------------------------------------------------------------------------------------------------------------------------------------------------------------------------------------------------------------

3. 2번 문제 풀이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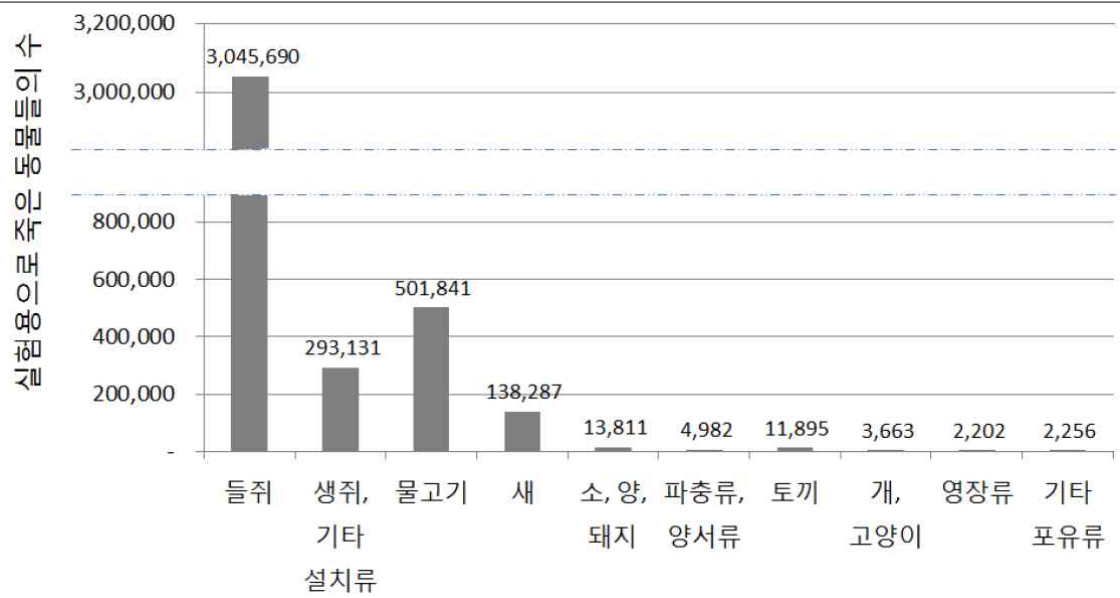
<도표 1>

동물들의 사인(死因) 비교



<도표 2>

실험용으로 죽은 동물들의 종류



<도표 3>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치료법의 활용 정도 (근사치)	
인공심장 판막 이식 횟수	4,000건
유방암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수	35,000명
인슐린을 투여받는 새로운 당뇨병 환자의 수	100,000명
전신 혹은 부분 마취 수술 횟수	3,000,000건
천식 치료제 처방 횟수	30,000,000건
항생제 처방 횟수	50,000,000건
※ 2013년 영국의 연간 통계	
1) 1번 문제의 논지와 자료를 연결시키기	
(나)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물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동물 - 목적]
(다)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을 인류애적 감정의 발현을 위한 도구로써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동물 - 수단(인류애적 감정발현)]
2) 자료의 객관적 해석	
<p><도표 1>은 먹이사슬에 따른 자연적 현상인 ‘식용 어류’와 ‘고양이가 죽인 야생동물’, 인간의 목적을 위해 희생된 ‘실험용 동물’을 보여준다. 또, <도표 2>는 <도표 1>에서 희생된 동물의 대다수가 설치류, 어류, 조류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도표 3>은 <도표 2>에서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들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공심장 판막’, ‘유방암 치료’, ‘천식 치료’, ‘항생제’로 이용된 것과 인간의 고통을 감소하기 위해 ‘인슐린’, ‘마취’에 이용된 것을 보여준다.</p>	
3) 제시문을 기준으로 <도표>들을 각각 평가하기	
(나)에 의한 평가	
<도표 1>	
<p>아무리 (나)가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더라도 <도표1>이 보여주는 ‘식용어류’로 죽은 동물의 수는 자연스러운 생태계 현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며 먹이 사슬 상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용어류’로 죽은 동물이 ‘고양이에 의해 죽은 야생동물’보다 수가 훨씬 많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중심적 행위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인간과 고양이는 개체수의 차이가 있고, 개체의 크기 차이 때문에 섭취해야 할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 의하면 <도표1>의 ‘실험용 동물’은 자연스러운 생태계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수단화되어 희생된 동물들의 수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부정적 평가를 면할 수 없다.</p>	
<도표 2>	
<p>실험용으로 동물들이 희생되는 것은 인류의 여러 목적을 위해 동물을 수단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표 2>만을 볼 때에는 부정적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p>	

<p><도표 3></p> <p>아무리 인간이 동물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심장 판막 이식’, ‘유방암 치료’, ‘천식치료’, ‘항생제’를 위해 동물들을 희생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동물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슐린’, ‘마취’를 위해 동물들을 희생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동물의 특수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p>
<p>(다)에 의한 평가</p>
<p><도표 1></p> <p>(다) 또한 (나)와 같은 이유로 <도표 1>의 ‘식용어류’는 긍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험용 동물’은 <도표1>만 보았을 때는 평가가 유보된다. 왜냐하면 (다)는 ‘동물이 어떤 행동이든 인간 행동과 유사하고 동일한 원리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며 인류와 가까운 종일수록 인류애적 감정발현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므로 다른 종들보다 더 존중을 받아야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p>
<p><도표 2></p> <p>(다)에 의할 때 위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인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리로부터 나오는 포유류와 영장류, 그리고 인간과 오랜 세월 같이 지내온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설치류, 물고기, 새 등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p>
<p><도표 3></p> <p>인류애적 감정발현의 연습 수단으로 동물들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우월적 사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존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p>
<p>4) 통합적 해석</p> <p>[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통합적 사고를 요했기 때문! 도표 1은 도표 2로 이어지고 도표2는 도표 3으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도표들을 각각 해석했다면 좋은 평가를 기대하긴 어렵다.]</p> <p>아무리 (나)가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더라도 <도표1>이 보여주는 ‘식용어류’로 죽은 동물의 수는 자연스러운 생태계 현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며 먹이 사슬 상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용어류’로 죽은 동물이 ‘고양이에 의해 죽은 야생동물’보다 수가 훨씬 많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중심적 행위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인간과 고양이는 개체수의 차이가 있고, 개체의 크기 차이 때문에 섭취해야할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 의하면 <도표1>의 ‘실험용 동물’은 자연스러운 생태계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수단화되어 희생된 동물들의 수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일단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도표 2>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종 차이에 따른 정당화 여지는 없다. (나)는 종 차이에 따라 각 동물이 가지는 가치의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표 3>의 ‘인슐린’과 ‘마취’로 동물을 희생한 것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이는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p>

<p>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이 이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심장 판막 이식’, ‘유방암 치료’, ‘천식치료’, ‘항생제’를 위해 동물들을 희생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예외적 정당화가 가능하다. 아무리 인간이 동물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동물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 <p>(다) 또한 (나)와 같은 이유로 <도표 1>의 ‘식용어류’는 긍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험용 동물’은 <도표1>만 보았을 때는 평가가 유보된다. (다)는 종의 차이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도표 2>에 의할 때 ‘실험용 동물’은 일차적으로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인류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 포유류와 영장류, 그리고 인간과 오랜 세월 같이 지내온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설치류, 어류, 조류 등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표 3>을 보면 ‘실험용 동물’은 더 정당화된다. 인류애적 감정발현의 연습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설치류, 어류, 조류를 희생시켜 인간의 생존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p>	
<p>5) 답안 작성하기</p>	
<p>1문단</p>	<p><도표 1>은 먹이사슬에 따른 자연적 현상인 ‘식용 어류’와 ‘고양이가 죽인 야생 동물’, 인간의 목적을 위해 희생된 ‘실험용 동물’을 보여준다. 또, <도표 2>는 <도표 1>에서 희생된 동물의 대다수가 설치류, 어류, 조류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도표 3>은 <도표 2>에서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들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공심장 판막’, ‘유방암 치료’, ‘천식 치료’, ‘항생제’로 이용된 것과 인간의 고통을 감소하기 위해 ‘인슐린’, ‘마취’에 이용된 것을 보여준다.</p>
<p>2문단</p>	<p>아무리 (나)가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더라도 <도표1>이 보여주는 ‘식용어류’로 죽은 동물의 수는 자연스러운 생태계 현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며 먹이 사슬 상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용어류’로 죽은 동물이 ‘고양이에 의해 죽은 야생동물’보다 수가 훨씬 많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중심적 행위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인간과 고양이는 개체수의 차이가 있고, 개체의 크기 차이 때문에 섭취해야할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 의하면 <도표1>의 ‘실험용 동물’은 자연스러운 생태계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수단화되어 희생된 동물들의 수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일단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도표 2>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종 차이에 따른 정당화 여지는 없다. (나)는 종 차이에 따라 각 동물이 가지는 가치의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표 3>의 ‘인슐린’과 ‘마취’로 동물을 희생한 것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이는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이 이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심장 판막 이식’, ‘유방암 치료’, ‘천식치료’, ‘항생제’를 위해 동물들을 희생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예외적 정당화가 가능하다. 아무리 인간이 동물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동물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

<p>3문단</p>	<p>(다) 또한 (나)와 같은 이유로 <도표 1>의 ‘식용어류’는 긍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험용 동물’은 <도표1>만 보았을 때는 평가가 유보된다. (다)는 종의 차이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도표 2>에 의할 때 ‘실험용 동물’은 일차적으로 정당화 된다. 왜냐하면 ‘인류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 포유류와 영장류, 그리고 인간과 오랜 세월 같이 지내온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설치류, 어류, 조류 등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표 3>을 보면 ‘실험용 동물’은 더 정당화된다. 인류애적 감정발현의 연습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설치류, 어류, 조류를 희생시켜 인간의 생존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p>
-------------------	-----------------------------------------------------------------------------------------------------------------------------------------------------------------------------------------------------------------------------------------------------------------------------------------------------------------------------------------------------------------------------------------------------------------------------------------

The 논술	2015 연세대 사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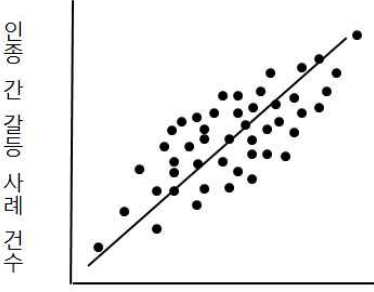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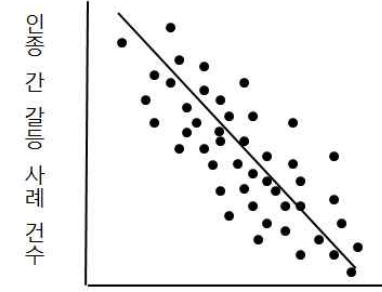
<문제 1>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르블롱 씨 부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가)

다음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행된 한 연구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두 화가(클레,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여준 후 어느 그림을 더 좋아하는지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피험자들을 두 집단 X(클레를 좋아하는 집단)와 W(칸딘스키를 좋아하는 집단)로 나누었다. 실험 상황에서 피험자는 실험자가 무작위로 뽑아 제시한 다른 두 명의 피험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배분해야 했다. 이때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두 사람 중 한 사람(A)은 X집단에 속해 있고, 다른 사람(B)은 W집단에 속해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험자는 15점의 점수를 A와 B에게 배분해야 했는데, 예를 들어 A와 B는 각각 9점과 6점을 받을 수도 있고 5점과 10점을 받을 수도 있었다. 피험자들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도 없었다. 또한 피험자들은 각자 다른 누군가에게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는 일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대부분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자신과는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제시문 (나)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기업에서 다수 인종과 소수 인종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연구자가 다양한 인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와 조직 내 인종 갈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이들 기업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 기업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기업별 인종 간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인종 간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사례 건수를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연구자가 분석한 것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문화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조직 내 인종 갈등 발생 건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표의 X축은 기업별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와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다. 도표의 Y축은 최근 5년 간 발생한 각 기업별 인종 갈등 관련 사건의 발생 건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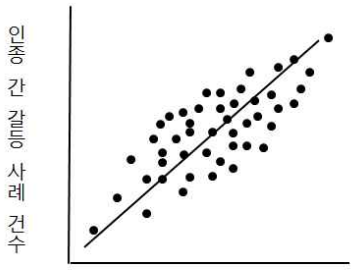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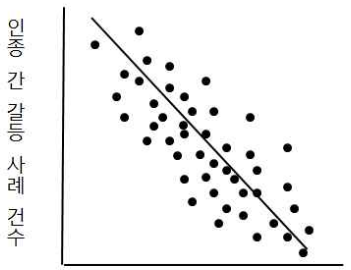
<p>[그림1]</p>  <p>인종 간 갈등 사례 건수</p> <p>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p>	<p>[그림2]</p>  <p>인종 간 갈등 사례 건수</p> <p>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p> <p>● 기업</p>
<p>제시문 (다)</p>	
<p>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는 얻는 것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연민이나 동정이 이런 종류의 원리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목격하고 슬픔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은 굳이 예를 들어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거나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은 물론, 무도한 악당이나 사회의 법률을 극렬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는 없다. 단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을 느낄지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내 형제가 고문을 받고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이 안락한 상황에 있는 한, 나의 감각은 그 형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전달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 자신을 넘어선 적이 없고, 또 넘어설 수도 없다. 오직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상상력조차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어떻게 재현될 뿐이다. 우리 상상력이 묘사하는 것은 타인이 감각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감각한 결과물일 뿐이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의 처지에 놓아보고, 타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인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몸으로 들어가며 어느 정도는 타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하고, 그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어떤 고통을 겪거나 고난에 처하는 일은 매우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관념이 생생하거나 희미한 정도에 비례하여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고통 받는 자와 처지를 바꾸어봄으로써 타인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p> <p>이것이 타인의 비참함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의 원천이 된다는 점은 여러 분명한 관찰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동정이나 연민은 타인의 슬픔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반면,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지칭하는 용어다.</p>	
<p>제시문 (라)</p>	
<p>프랑스인 노동자 르블롱 씨 부부가 사는 종키 거리 주변에는 알제리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르블롱 씨는 자신이 알제리인들을 존중하고 있고 자신 역시 그들로부터</p>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천정을 올려다보는 르블롱 씨 부인의 말투와 표정에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녀는 주로 이웃들과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는데, 이 때문에 이웃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도 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름 휴가철에 그녀의 아파트 안에서 나는 냄새와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간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신념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죄의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기도 했다. 르블롱 씨는 전체 학생 가운데 이민자 자녀인 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역 내 학교의 교사들이 이들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르블롱 씨가 지켜온 전통과 신념은 이민자와 함께 살면서 겪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인터뷰 중 알제리인 동료들에 대해 유보적 판단(“알제리인 동료 중 한 사람은 대단해요. 아랍인 치고는 대단한 사람이에요.”)을 드러내고 라마단* 동안 알제리인 동료들이 받은 특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그의 발언이 이와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한다. 사실상 그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때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신념은 프랑스 사회의 교육 전통과 사회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고 여러 정치적 참여 활동을 통해 강화된 것이었다.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인답게 관용의 가치, 아니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이해의 가치(그는 몇 번이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이라고 말했다.)를 실천하기 위해 르블롱 씨가 노력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아마도 인터뷰 상황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일 것이다. 하지만 라마단이 그에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하는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밥소사……. 음, 정말 끔찍했죠. 왜냐하면, 음. 나는 끔찍했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어른들은 낮에 잡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애들은……. 사내놈들은 길에 나와 놀죠. 그 녀석들은 소리를 질러대지요. 그 녀석들이 투덜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밤 10시쯤 떠들썩해지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그 때부터 진짜 소음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성스러운 기간.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섭취, 흡연, 음주, 성행위 따위를 금한다.

1. 1번 문제 풀이	
'차이'와 '같음'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논제이해 및 전략 구상	
2015 사회 논술은 전형적인 연세대 1번 문제인 '삼자비교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삼자비교형의 개요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되 '비교'부분에서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 외에 '차이와 같음'이라는 특별한 기준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2) 개요작성	
[삼자비교형 - 3문단, 16문장의 구조]	
1문단 - 2문장 (2문장 이내의 서론)	
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② 세 제시문(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	
2문단 - 7문장	
③ 제시문(A)를 두 제시문(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 (두괄식 구성 1문장) ④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 (4문장) 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 (각 1문장, 총 2문장)	
3문단 - 7문장	
⑥ 두 제시문(B, C)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소주제 설정 (두괄식 구성 1문장) ⑦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3문장) ⑧ 제시문(C)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3문장)	
3) 요약 및 비교 (다면적 기준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	
3)-1 일반적 기준 상기하기	
주제	행위의 '주제'가 누구인가.
대상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가.
의도	행위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도를 실현하려하는가.
결과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범위	그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3)-2 특별한 기준 세우기	
차이	'차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같음	'차이'가 같음을 만드는가.

3) -3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요약의 선택과 삭제원리와 결합하여)	
(가)	제시문 내용
	다음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행된 한 연구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에게 두 화가(클레,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여준 후 어느 그림을 더 좋아하는지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피험자들을 두 집단 X(클레를 좋아하는 집단)와 W(칸딘스키를 좋아하는 집단)로 나누었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대부분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자신과는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기준에 따른 독해
	(가)의 실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기호를 가진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제시문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1]</p>  <p>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2]</p>  <p>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p> </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 기업</p>
	기준에 따른 독해
	(나)에 따르면 객관적 차이인 인종의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수행할수록 갈등 사례건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이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제시문 내용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는 얻는 것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연민이나 동정이 이런 종류의 원리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기준에 따른 독해
	(다)는 인간은 이기적 본성과 더불어 연민, 동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타적 본성도 있다고 말하며 '공감'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을 심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나)의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이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
[삼자비교형 - 3문단, 16문장의 구조]
1문단 - 2문장 (2문장 이내의 서론)
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심리적 요인 혹은 객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로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며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② 세 제시문(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
(가), (나), (다)는 모두 ‘차이’와 ‘갈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문단 - 7문장
③ 제시문(A)를 두 제시문(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
그러나 (가)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차이’에 대해 논하는 반면에 (나), (다)는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의 해소에 대해 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④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
(가)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한 기호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기호를 가진 내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과 다른 기호를 가진 외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
(나)는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으로, (다)는 인간의 이타적 본성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말한다.
3문단 - 7문장
⑥ 두 제시문(B, C)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소주제 설정
그러나 (나)는 ‘갈등’의 직접적 해결방법으로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이 포함을 보여주는데 반해, (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여 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한다.
⑦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나)는 (가)와 달리 ‘인종’이라는 ‘객관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의 양상에 관해 보여준다. 이 점에서는 (나) 또한 (가)처럼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도 같다.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비록 100개의 기업, 5년의 기간이라는 제약은 있지만,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정도와 인종 간 갈등 발생 사례 건수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⑧ 제시문(C)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다)는 (나)보다는 조금 일반적, 추상적일 수 있는 ‘공감’을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은 이기적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이타적 본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줄임으로써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 (나)에서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종 간 갈등 발생 사례 건수가 줄어드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인간은 원래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기에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수록 이를 쉽게 인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여 공감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때문이다.

5) 완성된 예시답안

1문단	심리적 요인 혹은 객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로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며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가), (나), (다)는 모두 ‘차이’와 ‘갈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문단	그러나 (가)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차이’에 대해 논하는 반면에 (나), (다)는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의 해소에 대해 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한 기호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기호를 가진 내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과 다른 기호를 가진 외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나)는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으로, (다)는 인간의 이타적 본성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말한다.
3문단	(나)는 (가)와 달리 ‘인종’이라는 ‘객관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의 양상에 관해 보여준다. 이 점에서는 (나) 또한 (가)처럼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같다.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비록 100개의 기업, 5년의 기간이라는 제약은 있지만,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정도와 인종 간 갈등 발생 사례 건수는 반비례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는 (나)보다는 조금 일반적, 추상적일 수 있는 ‘공감’을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은 이기적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이타적 본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줄임으로써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 (나)에서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종 간 갈등 발생 사례 건수가 줄어드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인간은 원래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기에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수록 이를 쉽게 인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여 공감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때문이다.

3. 2번 문제 풀이	
제시문 (라)의 르블롱 씨 부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개요작성	
①	(라)의 르블롱 씨 부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1번 문제의 핵심어인 ‘차이’와 ‘갈등’이라는 요소에 따라 분석할 것.
②	(라)를 통해 (나)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할 것.
③	(라)를 통해 (다)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할 것.
2) 제시문 독해	
(라)	제시문 내용
	<p>프랑스인 노동자 르블롱 씨 부부가 사는 종키 거리 주변에는 알제리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르블롱 씨는 자신이 알제리인들을 존중하고 있고 자신 역시 그들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천정을 올려다보는 르블롱 씨 부인의 말투와 표정에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녀는 주로 이웃들과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는데, 이 때문에 이웃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도 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름 휴가철에 그녀의 아파트 안에서 나는 냄새와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간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신념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죄의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기도 했다. 르블롱 씨는 전체 학생 가운데 이민자 자녀인 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역 내 학교의 교사들이 이들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p> <p>르블롱 씨가 지켜온 전통과 신념은 이민자와 함께 살면서 겪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인터뷰 중 알제리인 동료들에 대해 유보적 판단(“알제리인 동료 중 한 사람은 대단해요. 아랍인치고는 대단한 사람이에요.”)을 드러내고 라마단* 동안 알제리인 동료들이 받은 특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그의 발언이 이와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한다. 사실상 그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때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신념은 프랑스 사회의 교육 전통과 사회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고 여러 정치적 참여 활동을 통해 강화된 것이었다.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인답게 관용의 가치, 아니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이해의 가치(그는 몇 번이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이라고 말했다.)를 실천하기 위해 르블롱 씨가 노력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아마도 인터뷰 상황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일 것이다. 하지만 라마단이 그에게 얼마나 ‘꿈쩍했는지’ 말하는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밥소사……. 음, 정말 꿈쩍했죠. 왜냐하</p>

	<p>면, 음. 나는 끔찍했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어른들은 낮에 잡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애들은……. 사내놈들은 길에 나와 놀죠. 그 녀석들은 소리를 질러대지요. 그 녀석들이 투덜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밤 10시쯤 떠들썩해지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그 때부터 진짜 소음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p> <p>*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성스러운 기간.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섭취, 흡연, 음주, 성행위 따위를 금한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라)의 르블롱씨 부부의 사례는 (나)처럼 인종,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블롱씨 부부는 프랑스식 관용인 ‘폴레랑스’를 통해 인종,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지만 냄새, 교육, 종교에 따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합니다. 교육을 통해 인종, 문화적 차이를 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머리로 알고 있어 겉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아 눈에 보이는 외적 갈등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에 대해 완전히 공감할 수 없기에 내적갈등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죄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랍인 치고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속으로는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양면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p>
<p>3) (라)로써 (나)와 (다)의 한계지적</p>	
<p>(나)</p>	<p>(나)는 인종, 문화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인종 간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활동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라)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실험은 직장 내의 갈등에 국한된 것이다. 직장은 사적영역이라기보다는 공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 실험의 결과를 모든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이에 따른 갈등이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둘째, 외적갈등은 줄어들 수 있으나 내적갈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인종, 문화적 차이가 계속 명확히 드러나기에 르블롱씨 부부처럼 겉으로는 다른 인종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적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외적갈등이 자주 발생되어 서로가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내적갈등이 증폭되어 하나의 사건이 살인, 방화 등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결국 이 실험은 눈에 보이는 외적갈등에만 집중했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p>
<p>(다)</p>	<p>(다)는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라)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너무 이상적인 해결책으로서 현실적이지 않다. 르블롱씨 부부는 자신들이 아랍인들의 감정이나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적개감만 높아졌을 뿐 문제상황을 해결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둘째, (다)는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신이 경험한 바에 비추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p>

	<p>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도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르블롱씨 부부는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 종교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공감은 무의미한 것이다.</p>
<p>4) 답안 작성하기</p>	
<p>1문단</p>	<p>(라)의 르블롱씨 부부의 사례는 (나)처럼 인종,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르블롱씨 부부는 프랑스식 관용인 ‘똘레랑스’를 통해 인종,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지만 냄새, 교육, 종교에 따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한다. 교육을 통해 인종, 문화적 차이를 포용해야한다는 사실은 머리로 알고 있어 겉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아 눈에 보이는 외적 갈등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에 대해 완전히 공감할 수 없기에 내적갈등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죄의식을 가지기도 한다. 겉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랍인 치고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속으로는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양면적 태도도 지니고 있다.</p>
<p>2문단</p>	<p>(나)는 인종, 문화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인종 간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활동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라)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실험은 직장 내의 갈등에 국한된 것이다. 직장은 사적영역이라기보다는 공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 실험의 결과를 모든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이에 따른 갈등이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둘째, 외적갈등은 줄어들 수 있으나 내적갈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인종, 문화적 차이가 계속 명확히 드러나기에 르블롱씨 부부처럼 겉으로는 다른 인종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적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외적갈등이 자주 발생되어 서로가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내적갈등이 증폭되어 하나의 사건이 살인, 방화 등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결국 이 실험은 눈에 보이는 외적갈등에만 집중했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p>
<p>3문단</p>	<p>(다)는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라)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너무 이상적인 해결책으로서 현실적이지 않다. 르블롱씨 부부는 자신들이 아랍인들의 감정이나 상태를 이해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적개감만 높아졌을 뿐 문제상황을 해결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둘째, (다)는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신이 경험한 바에 비추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도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르블롱씨 부부는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 종교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공감은 무의미한 것이다.</p>